

오늘 맞잡은 손에 국민 감동

지관 스님·정진석 추기경, 성가정입양원서 첫 만남

“불교에서는 어린이를 ‘천진불’이라며 부처님과 같다고 말하는데, 마침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어린이날과 겹쳐 더욱 뜻이 깊습니다.”(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5월 5일(음력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27일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서울 성북동 성가정입양원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지난 3월 추기경에 서임된 정진석 추기경과 첫 만남을 가졌다.

오후 3시 지관 스님과 총무원부·실장 스님들이 입양원 마당에 들어서자 마중 나온 시설 관계자와 자원봉사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정진석 추기경은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해 우리 입양원을 방문해 주신 지관 스님과 같이 수행해온 스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조계종 스님들을 맞았다. 지관 스님과 정진석 추기경은 이날 첫 만남이었지만, 오랜 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맞잡은 두 손은 놓을 줄 몰랐다. 이어 지관 스님 일행은 서울대교구 허영엽 신부의 사회로 간단한 시설 소개와 환영인사를 받고 입양원장 운영수 수녀



지관 스님(왼쪽)과 정진석 추기경이 어린이를 안고 자비로운 세상이 되길 기원했다.

게 총무원이 마련한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관 스님과 정진석 추기경은 입양원 2층의 신생아실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환담도 나눴다. 이곳에서 원장 수녀로부터 아기를 받아 안고 어르던 지관 스님이 “지금까지 우리 종단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 복지시설만 들었는데 올해는 특히 이곳을 제일 먼저 들렀다”고 말하자, 정진석 추기경은 “5월 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쳐 더욱 의미가 깊다”고 화답했다.

입양원 마당에서 기념 촬영을 끝낸 지관 스님이 다음일정을 위해 차

에 오르기 직전까지 두 사람은 손을 놓지 못했다. 정진석 추기경은 “오늘 불교와 천주교가 손을 맞잡은 모습을 방송과 신문을 통해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의 이날 방문은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두 종교간의 화합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다.

한편, 지관 스님은 이날 오후 5시 도선사에서 운영하는 혜명보육원,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연합회, 신당1동 어린이집 등 불교계 복지시설을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비구니 원로 ‘명사’ 법계 품서

조계종, 혜운·광우·묘엄·명성 스님 등 6명

혜운 광우 묘엄 지원 명성 정훈 스님 등 조계종 원로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 최고 법계인 명사에 품서된다. 2004년 비구니로 27명에게 대종사 법계가 품서된 이후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부는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2차 법계위원회(위원장 혜정) 회의를 열고, 단일계단의 니화상을 지낸 비구니 원로 스님 6명에 대한 ‘명사’ 법계 품서와 ‘법계법 시행령’ 제정을 결의했다.

이번 품서되는 ‘명사’ 법계는 승랍 40년 이상에 21조 가사(비구는 25조)를 수할 수 있으며, 비구 스님들

의 대종사와 같은 법계다.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종정 법전 스님으로부터 정식 법계를 인정받는다.

법계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비구 견덕(비구니 계덕)부터 대종사(명사)까지 6단계로 이뤄진 법계구분이 명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총무원에 법계법 시행령을 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법계위 위원장 혜정 스님은 회의에 앞서 종정 법전 스님을 대신해 해인사 율원 율주 종전 스님에게 법계 제도 정착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포상했다.

조용수 기자

“항 박사 무혐의 선처를”

조계종 원로 스님 9명 청와대에 청원

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9명 스님 이름으로 ‘황우석 박사의 무혐의 선처와 연구 재개’를 바라는 청원서를 4월 2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탄원서는 “줄기세포 연구는 종교나 이념을 떠나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수억 창생을 위한 고귀한 연구이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여론 대립은 하루빨리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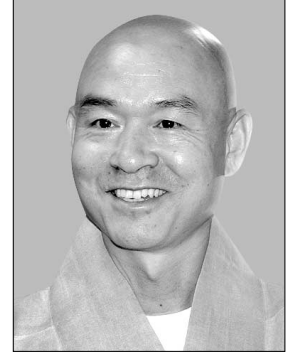
불교인권위원회 전관 스님은 이날 원로의원 스님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공개하고 오후에 청와대와 검찰청에 문건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탄원에는 원로회의 의장 종산, 전 계대회상 성수, 혜정, 원명, 초우, 진제, 동춘, 이두 스님 등이 동참했다.

전관 스님은 “황우석 박사 문제에 종단이 나서서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원로의원 스님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이사회 갈등 풀고 종단과 유기적 관계 모색”

동국대 새 이사장 영배 스님



“학교 구성원들간 화합을 위한 방향점을 모색하겠다.”

4월 27일 동국대 본관에서 열린 제218차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새 이사장에 만장일치 선출된 영배 스님(사진)은 “학교 갈등의 원인은 바로 이사회”라며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인 조계종 소속 스님들과 그 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월 18일부터 제36대 이사장 임기가 시작되는 영배 스님은 “교육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하겠다”며 “총무원장 스님이 종단 원로이자 선배님이어서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이사가 된 후 상임이사회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동안 학교 실상을 잘 알 수 있었다”는 영배 스님은 “이들 바탕으로 법인과 학교 관리감독을 충실히 할 생각”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영배 스님은 “현재 각 대학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학교가 어떠한 지향점을 가질 것인가를 모색하겠다”며 일산 불교병원의 예를 든 뒤 “2천만 불

자의 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설립 취지가 무색할 수도 있다”며 재정적 어려움 등에 대해 종단의 협조를 구할 뜻을 나타냈다.

영배 스님은 “이제부터는 학교와 종단이 분리돼 갈등과 대립을 하지 않고 동국대라고 하면 조계종 대학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 취임식과 관련 “과거 취임식과는 다른 형태로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영배 스님은 1966년 경학 스님을 은사로 수계한 후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제11·12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13대 중앙종회의원이다.

남동우 기자

CBS 등 경인방송 새 사업자로 “종교방송화 우려”

조계종 등 불교계의 우려속에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로 기독교방송(CBS) 등이 참여하는 ‘가정(주)경인TV컨소시엄(대표 신현덕)’으로 최종 결정됐다.

현 방송위원들의 임기만료 1개월도 남지 않은 방송위원회가 4월 28

일 경인민방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위원장 성유보)를 열고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와 미디어월, 경기고속, 매일유업, 기독교방송 등이 참여하는 (주)경인TV컨소시엄을 새 사업자로 선정한 것. 지난 3월 초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예상을 받는 자리에서 “종교편향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조용수 기자

권영기 대장·김용림씨 ‘불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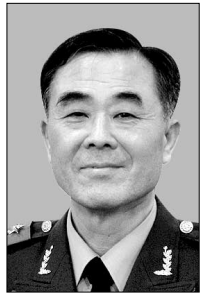
2군 사령관 권영기 대장과 방승인 김용림씨가 올해 불자대상을 수상했다.

권영기 대장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2군 사령관으로 재직중이다. 1994년 육군본부 불교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3월까지

는 국군불교총신도회장으로 군불교진흥에 전력을 다해왔다. 김용림씨는 남평 남일우씨와 함께 조계종 신도증 홍보모뎀, 해인사 등판 팔만대장경 홍보대사 등으로 활약, 방송 등을 통해

서도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해온 불자로 잘 알려져 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5월 5일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서 두 사람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조용수 기자



권영기 대장



김용림씨

진각종 종의회 의장 헤인 정사 선출

진각종은 4월 26일 서울 총인원 내 종의회 회의실에서 재적의원 37명 중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7회 정기 종의회를 열고 헤인 정사(행원심인당 주교·사진)를 제12대 종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헤인 정사는 1986년 신학심인당에서 교회를 시작, 득도심인당 주교, 사강위원, 통리원 재무부장, 진각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종의회 부의장에는 의원(의밀심인당 주교) 정사와 지명해(밀엄심인당 주교) 전수가 선출됐다.

김주일 기자



국보 56%·보물 65%가 ‘성보’

조계종 문화부, 불교문화재 현황목록 발간

국보 가운데 성보문화재가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물의 경우는 3분의 2 정도가 성보문화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탁연)가 최근 발간한 2006년도 불교문화재 현황 목록집에 의하면, 국보 308점 가운데 성보문화재는 173점으로 전체의 56.4%이며 이 중 71건은 국가 소유, 62건은 조계종, 38건은 개인소유, 2건은 조계종 이외 종단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물의 경우 전체 1457점 가운데 935점, 65.3%가 성보문화재이며 소유자는 조계종이 422점, 국가 339

점, 개인 152점, 조계종 이외 종단 21점, 기타 1점으로 밝혀졌다.

시도유형문화재는 전체 2219점의 시도유형문화재 가운데 52.9%인 1173점이 성보 문화재이며 그 가운데 65%가 조계종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목록집은 문화재청이 2006년 1월 31일 현재 지정 고시한 문화재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국가지정문화재 불교문화재 목록과 시도지정문화재 불교문화재 목록, 불교문화재 현황 통계 등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김두식 기자

새롭게 열린 대웅전

문화도량 조계사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참 행복과 자유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 같이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참 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